

문화광장



홍 정 호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장

결국 창작은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행위’다. 제주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예술 창작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제주와 한국, 나아가 세계 속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대몬 헌터스’ 속에서도 제주와 돌하르방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제주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엔터테인먼트적 장치가 아니라 서사의 출발선이라는 점은 놀라웠다. 가장 한국적인 것의 원천에 제주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문화적 자산과 예술창작

차용이 제주 외부의 시선에서 창작돼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 내부의 창작자들이 자기 목소리로 서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그들의 지속적 창작을 보장하는 것은 제주와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는 일이다.

돌과 바람, 바다와 신화, 그리고 돌하르방으로 대표되는 상징체계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제주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문화적 언어다. 창작자는 단순히 작품을 생산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는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지를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자다. 허구와 상상의 세계를 짓는 행위는 곧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작업이다.

‘창작(創作)’이라는 말은 ‘새롭게 세우고 짓는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서양어 ‘creation’은 라틴어 ‘creare’에서 유래한다. 이는 ‘낳다’, ‘자라나게 하다’라는 의미다. 예술 창작이 단순한 반복이나 모방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새로움의 탄생,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현실 속에 열어놓는 데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창작은 체험과 상상,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식과 구별되는 객관적 형식으로 구현하는 능력의 결합이다.

그렇다면 왜 제주가 예술을 품어야 하는가. 첫째, 예술은 개인에게는 자기표현의 언어이며 공동체에게는 기억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돌하르방이나 해녀의 노래가 단순 민속자료를 넘어 지금도 제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로 작용하는 것처럼, 예술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 둘째, 예술은 치유와 소통의 힘을 지닌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과정이다. 셋째, 예술은 사회의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기술이 삶의 조건을 바꿔왔다면, 예술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해왔다.

예술은 경제 논리만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대량생산과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엔 시장의 효율성 논리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창조하는 무형의 가치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창작 기회와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곧 사회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제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국비 역대 최대… 추가 확보에 만전 기해야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 도내 주요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301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제주도가 확보했던 국비 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2배 이상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2년 연속 국비 2조원을 넘은 데 이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도 국비 7178억원이 반영돼 전년도 2669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587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

재 재원이 정제되고 국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에 투자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신청한 사업들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올랐다.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등은 공조해 상임위 설득노력을 보강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타당성 확보 시설관리공단 설립 ‘설레발’

제주지역 하수도과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르면 내년 7월 설립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실시한 가칭 ‘제주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주민 설문 결과도 보태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공공 분야를 공단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공단 설립 타당성을 따질 때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데 모든 항목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지금처럼 민간에 공공시설 운영을 맡길 때보다 비용이 연 평균 84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시설 운영 전문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단 설립을 위한 두 번의 곡절을 겪으면서 예열을 마쳤다. 기대에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민선 7기 계획 때 정원이 1000명을 넘어서며 업무를 내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출범 초기 555명 규모로 줄였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647명 규모로 증원으로 했다. 기존 인력이 있는 가운데 적은 인원이 또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지지 된다. 아울러 전문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여는 기대감뿐이다. 기존 인력 등의 수급 문제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하다. 멀리 내다보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열린마당

“벌초 시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강 한
제주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작업 중 주로 다치는 상해 부위는 다리발 및 52.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팔과 손이 29.7%를 차지했다. 상해 증상으로는 날카로운 예초기 칼날 등에 의한 피부 찰과상, 골절, 발 찰임 순으로 이어졌다. 예초기 작업 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안전보호구·보안경·안전화 등)를 착용해야 한다. 둘째, 예초기 사용 전에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고,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는 반드시 동력을 차단한 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작업 중 돌과 나뭇가지·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준수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필요로운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시기는 예초기·농기계 사고, 벌 쏘임, 온열질환 등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벌초 작업 중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73건으로 연평균 34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예초기, 낫, 호미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9월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이재명 정부 정책 부합 시너지 효과”

오 지사, 국비 확보 성과 강조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일 도청에서 열린 ‘9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와 지역 경기 상승세를 강조. 9월부터 본격화되는 하반기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오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이재명 정부 정책과 부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비 확보 성과는 부처와 국회의 발로 뛰며 설득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 이어 오 지사는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지역 경제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 전선희기자

“제주-훗카이도 교류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본 훗카이도를 방문해 주요 자매결연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교류 기반을 구축. 이번 방문에서는 삿포로관광협회와 치토세관광연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교류 추진을 약속하고, 또 내년 개최 예정인 제3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초청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교류 확대의 계기를 마련. 강동훈 도관광협회장은 “팬데믹으로 제한됐던 기존 자매결연기관과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벤트 연계와 전세기 운항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오은지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정수(1967. 09. 27. 생)

• 최후주소 :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25번길 17 (삼곡본동)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911

상기자는 2022년 6월 2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5년 8월 28일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5년 단 106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로22길 4-2 (구좌읍)

2025. 9. 2.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무선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특별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조동우(1957. 03. 29. 생)

• 최후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선1길 94 (봉선리)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37번지

상기자는 2022년 3월 1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5년 8월 27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5년 단 161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애월읍 하귀2길 19-5, 103호 (하귀1리, 글드오션)

2025. 9. 2.

공고인(특별상속한정승인자) 조현지, 조현우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청, 번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